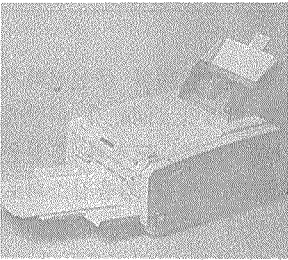


(주)금성사
요르단 TV 공장 준공

(주)금성사(대표 : 李憲祖)가 수출한 플랜트로 건설된 요르단의 최초의 컬러TV공장이 준공됐다. 同社가 요르단의 대표적기업인 MEE社에 작년 6월부터 모두 400만달러규모의 플랜트를 수출, 완공된 이 공장은 연간 컬러TV 5만대 생산규모로 同社는 앞으로 5년간 1,500만달러 가량의 부품을 추가로 공급하게 된다.

이와함께 생산된 제품을 전량 「골드스타」브랜드로 요르단국내는 물론 중동 아프리카지역에 판매할 수 있게됨으로써 브랜드이미지 제고는 물론 주변 중동국가로의 수출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주)금성사
레이저 빔 프린터 국산화



금성사가 카트리지교체방식의 레이저빔프린터 GLP-1150을 국산화했다. 同社가 공급에 나선 이 프린터가 전자출판이나 CAD(컴퓨터지원설계)등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여러종류의 카트리지중 용도에 맞는 것을 선택, 고화질 및 초고속으로 인쇄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 프린터는 16메가헤르츠의 MC68000CPU(중앙처리장치) 및 2.5MB의 메모리를 내장, A4용지 10장을 1분안에 인쇄하며 B4규모의 문서를 A4급으로 축소 인쇄할 수 있다.

금성계전(주)
FA시스템용
SW패키지 개발

금성계전이 공장자동화(FA) 시스템용 소프트웨어패키지를 자체 개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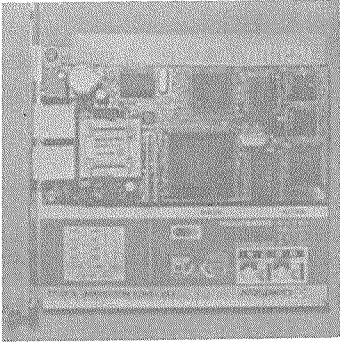
「FA 매니저」로 명명된 이 제품은 공장내 각종 기기와 연결해 정보를 집중제어, 컴퓨터통합생산체제(CIM)를 구축할 수 있으며 간단한 한글도움말 시스템을 사용해 프로그램을 짜게끔 된게 특징이다. 또 시스템의 보완 유지를 위해 16종의 레벨을 제공, 감독자나 관리자 운영자별 관리가 가능토록 설계되고 인간대 컴퓨터의 대화기능을 넓히기 위해 터치스크린과 키보드를 채용했다.

금성산전(주)
「스카다」시스템 국산화

금성산전(대표 : 李喜鐘)이 발전소를 비롯한 대규모 플랜트의 전력계통 및 가스와 상수도 설비를 종합관리하는 집중원방감시제어(SCADA) 시스템을 자체기술로 개발했다.

同社는 이 시스템이 원거리에 설치된 설비들의 상태나 수치 등의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수집, 중앙컴퓨터에서 처리한뒤 그 결과를 컬러그래픽 프로그램에 의해 사용자가 검색하고 상황을 감시토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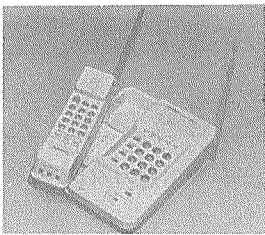
금성정보통신(주)
Fax겸용 데이터
모델 개발



금성정보통신(대표 : 鄭壯皓)은 기존의 데이터모뎀기능을 가지면서 팩시밀리 통신까지 가능한 저가형 Fax/Data모뎀 3종(GSF9624BC, GSF9624VB)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모뎀은 PC 내장형 다이얼업 Fax/Data 모뎀으로 기존의 모뎀이 가지고 있는 각종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동시에 PC에서 작업한 서류를 상대방 FAX와 직접 주고 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는 PC로 작업할 경우 이를 프린터로 출력해 다시 Fax로 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금성정보통신의 Fax/Data 모뎀개발로 PC와 Fax간 직접 송수신이 가능해졌다.

금성통신(주)
도청 방지 무선폰 시판



금성통신(대표 : 白重英)은 도청의 가능성을 없앤 비화 무선전화기(모델명 GS-320)를 개발, 시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同社가 이번에 선보인 비화기능 무선전화기는 무선전화기의 약점인 도청과 혼신을 줄이는 기능을 갖는게 특징이다. 同社 GS-320모델은 잠음감소회로인 컴팬더 IC를 채택한 15채널 MCA방식이다.

同社는 이제품이 100만개의 디지털코딩으로 다른 무선전화기에 의한 도청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시외통화제어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대륜정밀(주)
마닐라에 현지공장 설립

위성방송수신장비(SVR) 전문업체인 대륜정밀(대표 權盛祐)이 필리핀에 현지공장을 건설한다. 또 신기술 개발을 위해 미국 샌디에이고지역에 자체연구소를 설립한다.

총490여만달러를 들여 필리핀 마닐라 근교의 카비테공단내에 세워질 대지1만평 건평 3,500평규모의 현지공장은 빠르면 오는 6월말부터 시제품생산에 들어간다. 대륜은 현지공장운영을 위해 지난 2월 240만달러를 단독투자한 현지법인 대륜필리핀을 설립했다. 현지공장에서는 비교적 저가의 SVR와 차량속도감지기 PCB(인쇄회로기판)를 생산, 미국 유럽지역 수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대륜정밀은 지난 '91년 유럽시장에 대한 경쟁력확보를 위해 독일 테크세트社와 각각 75만마르크를 출자해 현지조립공장을 건설기로 했으나 유럽시장불황으로 물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계약

을 파기하고 필리핀에 공장을 건설키로 한 것이다.

대륙은 특히 국제경쟁력확보와 신제품개발을 겨냥, 총 100만달러를 투자한 자체연구소를 올상반기중 미국 샌디에이고지역에 설립한다.

**(주)삼보컴퓨터
차세대 컴퓨터 개발**



삼보컴퓨터(대표 : 김종길)는 최근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한 차세대형 컴퓨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386DX급 PC인 이제품은 인체공학을 고려한 곡선형의 키보드와 외형상의미를 추구한 본체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콤팩트디스크(CD)와 테이프드라이브를 장착할 수 있어 세계적인 기술추세인 데스크톱(탁상형) LAN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同社의 컴퓨터는 기존PC와 달리 견고한 플라스틱소재로 제조, 나사조임이 필요없어 생산자동화에 획기적인 제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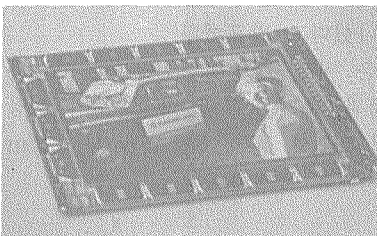
**삼영전자공업(주)
고품질 콘덴서
소형개발 양산**

삼영전자공업(대표 : 邊東俊)은 최근 전자제품의 고성능 경량화에 부응할 수 있는 고품질의 소형콘덴서를 새로 개발, 양산에 돌입했다.

삼영전자가 이번에 개발한 높이 7mm의 SHL, SRJ시리즈와 높이 5mm의 SRM시리즈는 기존의 SMS SRA SRE시리즈에 비해 체적이 16~25%에 불과한 반면 전해액의 특성 및 봉구재의 재질을 대폭 보강, 제품수명을 크게 늘린 것이다.

특히 민수제품용으로 사용범위가 가장 넓은 SHL시리즈는 제품의 보증시간을 기존의 쉰여덟도 1천시간에서 2천시간으로 늘렸다.

**삼성전자(주)
컬러 LCD국내 첫 개발**



삼성전자(대표 : 姜普求)는 10·4인치컬러TFT(薄膜트랜지스터) LCD엔지니어링 샘플 개발에 성공하고 시제품생산에 들어가 하반기중 상업용 샘플을 출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LCD는 2개의 유리판사이에 액정을 특정방향으로 주입한후 부분적으로 전압을 가해 액정분자의 배열을 변화시킴으로써 문자 도형 화상등을 나타내는 표시장치이다.

이번에 개발된 10.4인치 컬러 TFT LCD는 일부 일본업체만이 개발, 상품화 단계에 있는 첨단 제품이다.

이 제품은 512종류의 색을 표시할 수 있는 92만 1,600기의 화소로

구성된 VGA(비디오 그래픽 어레이)급 제품으로 랩톱PC 노트북PC 등 OA(사무자동화)기기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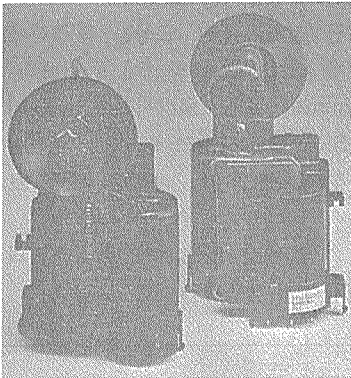
**삼성전자(주)
플러스 VCR, 미국 수출**

삼성전자(대표 : 姜晡求)가 버튼하나만으로 원하는 TV프로그램을 예약녹화할수 있는 플러스기능채용 VCR 3천만달러어치를 미국 RCA社에 수출한다.

同社は 29일 美RCA社와 플러스예약녹화방식 VCR를 15만대, 3천만달러어치 수출키로 계약을 체결하고 내달부터 선적에 들어갈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RCA에 수출할 플러스VCR는 TV프로그램 안내의 프로그램 고유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히 예약녹화할수 있는 제품으로 고속되감기, 문자표시기능 등도 갖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와관련, VCR플러스에 관한 특허권자인 미국젬스터社와 이미 특허사용 계약도 체결했다.

**삼성전기(주)
초고해상도
고압변성기 국산화**



지금까지 일본의 일부업체가 독점공급해오던 초고해상도FBT(고압변성기)가 삼성전기(대표 : 黃善斗)에 의해 국산화됐다. FBT(Fly Back Transformer)는 TV, 모니터, 캠코더, 비디오 폰 등에 장착돼 직류고전압을 공급해주는 영상기기의 핵심부품이다. 同社가 지난해 1월부터 개발에 착수, 국산화에 성공한 이제품은 수평주파수30.5~1백KHz대의 울트라VGA급으로 초고해상도의 컬러모니터에 사용된다.

**삼성항공산업(주)
스카라 로봇 개발**

삼성항공은 지난 '91년 5월부터 11개월동안 3억원을 투입, 고속형 스카라로봇을 개발하고 시판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SSR시리즈」로 명명된 이 로봇은 직접구동방식로봇에서만 가능하던 외부배선제거를 실현했으며 1축과 2축의 로봇팔 합성속도가 초당 5.6m, 위치반복도 0.03mm로 종전 로봇의 각각 초당 4.6m와 0.05m에 비해 20% 뛰어난 성능을 지닌게 특징이다.

새한미디어(주)
홍콩, 판매법인 설립

새한미디어(대표:李在寬)가 자기테이프의 해외마케팅을 대폭 강화한다. 同社는 후발경쟁국의 추격과 고임금에 따른 경쟁력약화에 대응, 수출마케팅을 강화키로 하고 미국 영국에 이어 홍콩에도 현지 판매법인을 설립키로 했다. 약 2,500만달러가 투자돼 올 상반기중 세워질 이 판매법인은 앞으로 주로 중국을 대상으로 자기테이프 마케팅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同社는 이를위해 이미 프로젝트팀을 구성, 시장조사활동을 벌이는등 구체적인 설립계획을 마련중이다.

새한정기(주)
테크 수출 본격화

새한정기(대표:安應洙)가 오디오 핵심부품인 테크메커니즘의 수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테크전문업체인 同社는 카스테레오 및 오디오 경기침체로 테크의 국내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해외마케팅을 강화, 이를 만회키로 했다.

이와관련 同社는 올 수출목표를 작년보다 두배가량 많은 70억원으로 높여잡았다.

同社는 이를 달성하기위해 135만달러를 단독투자, 중국 天津에 2,500평규모의 테크조립공장을 마련하고 현재 가동중인 현지 임대공장 설비를 이전해 내달부터 월30만개 정도를 생산해 동남아등지로 수출할 계획이다.

쌍용컴퓨터(주)
인사관리 시스템 개발

쌍용컴퓨터가 컬러사진 등 영상자료와 통계용 그래픽을 나타내주는 새 형태의 인사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각종 자료의 검색기능을 갖고 있다. 이더넷 토큰링 FDDI 등 LAN(구역내통신) 시스템 환경에서도 쓸수 있다고 同社는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호스트컴퓨터에서 사용중인 기존의 인사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인사기록사항 및 인물사진을 함께 처리할 수 있고 경영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인사관련 영상정보의 지원도구로 쓸수 있다.

또 윈도우방식을 써 사용자에게 따라 제공하는 인사정보를 차별화할 수 있다고 同社는 덧붙였다.

현대전자산업(주)
386DX급 PC개발

현대전자는 최근 시스템확장이 용이한 386DX급 PC신기종을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이 PC(모델명:슈퍼386DA/40)는 AMD80386 DXL칩을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채택, 40메가헤르츠의 정보처리 속도를 갖고 있다.

특히 이 제품은 CPU(중앙처리장치)카드만 교체하면 386DX에서 486SX, 486DX까지 손쉽게 시스템확장이 가능하며 각종 그래픽모드와의 호환성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태광산업(주)
가요 반주기 시판

태광산업(대표 : 李基和)이 국내최초로 자체개발한 가요반주기를 다음달부터 본격 시판한다.

同社は 작년말 개발한 가요반주기 「TMX1065R」를 올초 1,000대가량 컴포넌트시스템에 내장해 군납한데이어 다음달부터 월1만대규모의 양산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인 단품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TMX1065R」는 오디오전문업체인 태광산업과 오아시스레코드社가 공동제작한 것으로 폴벤드연주의 가요, 민요, 번안가요 등 1,050곡을 IC칩에 내장, CD와 같은 원음을 반영구적으로 즐길 수 있게 한 것이다.

同 제품은 또 확장팩을 이용해 최대1,999곡까지 입력이 가능하며 전기능을 리모콘으로 조절할 수 있다.

◆ 바로잡음 : 전자진흥 4 월호 경영자 인터뷰 - 하나로전자(주) 대표이사 : 하경

명랑한 직장만들기 캠페인

점심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총무과 미스 정은 창가로 걸어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루종일 밀폐된 사무실에 앉아 일을 한다는 것이 신입사원 미스 정에게는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 밖을 바라보던 미스 정은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꽃잎을 머금은 오월의 싱그러운 바람이 미스 정 의 답답했던 가슴을 활짝 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미스 정은 문득 어제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미스 정! 이 서류 좀 경리과에 갖다줘요, 미스 정 내 것도, 미스 정 내 것도, 미스 정, 미스 정, ...”

과장님을 비롯한 총무과 사원 모두가 미스 정 의 도움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정신 없이 그들의 목소리를 따라다니던 미스 정은 한순간 정작 자신이 해야 될 일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명랑한 직장생활이란 자기가 맡은 일은 최대한 자기 스스로 먼저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남의 도움을 부탁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창립 16주년을 맞은 이 5월, 우리 모두 자기가 맡은 일은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책임의식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신의 잘못된 실수나 부탁을 할 때는

‘미안합니다’라는 반성의 마음과 함께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면

자칫 짜증이 많아지기 쉬운 계절에 명랑한 직장생활이 되지 않을까요.

전자진흥 편집실